

# 진도군, 고병원성 AI 차단 선제방역 나서



진도군이 3년 연속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선제적 맞춤형 차단 방역에 나섰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와 충남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유럽과 주변국에서

도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제·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해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소독 후

## 3년 연속 AI 청정 지역 유지 방역대책 총력 긴급방역비 투입·야생철새 서식지 드론 방제

출입하고 있다. 또 방제 차량으로 가금집중관리농가 15세대에 대해 매일 축사 주변과 진입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AI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진도군은 체계적인 차단 방역 활동으로 최근 3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제 ▲방역관리 요일제 운영 ▲1일 1회 전화 예찰 ▲현장 점검을 통해 모든 가금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철새가 주로 출몰하는 군내호, 둔전호, 진도천, 소포만 등 주요 답수

호와 소하천 7개소 29km를 대상으로 드론 항공 방제를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씩 주기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맞춤형 긴급 방역비 2억여원 투입해 생석회와 소독약품, 면역 증강제 등을 가금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농장 내·외부와 출입차량 소독,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관내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축산 농가와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완도군, 스마트 드론 운용 시스템 시연회 재난·사고 발생 및 의약품 배송 등 활용도 높아질 것 기대

완도군은 지난 11일 완도해양경찰 전용 부두에서 스마트 드론 운용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드론 시연회는 경찰과 해양경찰, 군부대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해상으로 도주하는 불법 밀입국자를 드론으로 실시간 관제하면서 육상에서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완도군은 스마트 드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재난 및 사고, 범죄 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을 112, 119, 해양경찰, 군부대 상황실로 즉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채수용 드론을 이용하여 바닷물 1리터를 채수하여 수질을 검사하

는 과정과 물품 배송용 드론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싣고 긴급 전달하는 과정도 시연했다. 스마트 드론 운용 시스템은 앞으로 해상에서 접근하기 힘든 양식장이나 수심이 깊고 오염된 지역의 수온 변화 및 적조 피해 예방 활동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의약품 배송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해관리 스마트 드론 운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도서 지역에 드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드론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장흥군, 생명의 탐진강 만들기 '윤곽' 강진군·익산지방국토청과 업무협약 성과 나타나

장흥군은 지난해 '생명의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업무협약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 6월 27일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생명의 탐진강'을 만들기 위해 약속하고 탐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후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을, 장흥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7년 11월부터 부산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해 제방보수 1.96km, 자전거도로 7.63km, 보개량 2개소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올해 연초부터 교통사

고가 잦고 병목현상이 심한 연산마을 급커브구간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공사가 95%이상 완료돼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장흥읍 장흥교부터 강진읍 남포리까지는 장흥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총사업비 323억원을 투입해 제방보수 2.4km, 자전거도로 10.9km, 보 4개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흥군도 2020년 한해 아름다운 탐진강을 가꾸기 위해 국비 4억 2000만원과 군비 10억원을 투입해 정남진산업에서 구 부산교간 제방도로 유지보수, 탐진강 다목적광장 포장, 정하아파트 앞 진입도로 확장 및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 중간보고회 해상케이블카·관광·레저·휴양시설 등 3천700억원 민자유치

강진군이 지난 12일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자리로 이승욱 군수와 군 실과소장을 비롯해 주민 대표, 민간투자자, 관련 용역업체 등이 참석했다. 강진 저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가우도 지구 단위계획의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의 과업별 추진 경위와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단계별로 1단계 역점사업인 케이블카, 스카이버이크 등의 사업별 추진사항과 2-3단계 사업으로 알파인코스터와 풀빌라,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에 대한 사업계획까지 중간보고했다. 보고 후에는 참석자 간의 추진사항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강진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계획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별 보완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은 기존의 체험시설에 새로운 콘텐츠를 확장해 강진을 서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향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24일 도청 도지사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이승욱 강진군수, 투자기업 ㈜GFI개발 이용백 대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우도 관광지 조성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가정간편식(HMR) 개발 착수 특산물인 배추 활용 목은지·볶음김치 등 특화 개발 제안

해남군이 수요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11일 해남문화예술관 다목적실에서 가정간편식 식품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HMR협회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다원연구소, 팜8 등 HMR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관내 가공업체, 해남군 강상구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에서 참석했다. (사)한국HMR협회 이택환 사무국장은 "해남 HMR전략개발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남특산물인 배추를 활용한 목은지, 볶음김치 등 다양한 김치가공식품을 특화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방미애 연구개발팀장은 "국내 HMR산업현황"발표를 통해 국내 HMR산업현황과 식품의 가능성표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원 최순호 연구소장은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 부산물 등을 이용,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 등을 개발하는 '해남군 HMR자원의 Up-cycling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 여성 사회 참여 확대로 식생활문화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해남군도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HMR식품을 개발과 육성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정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식품 가공 분야 사업 발굴과 대응전략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